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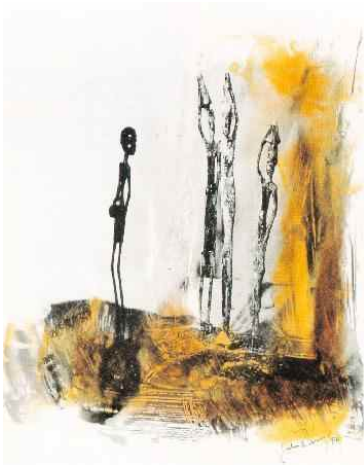
소외

Entfremdung

1. 어원 및 개념 정의

소외는 타자라는 느낌, 라틴어로 소외 alienum이며 독일어로는 Entfremdung이다. 소외는 무엇(누구)으로부터 멀어지다, 소원해지다의 의미를 지닌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손이 낯설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실제로 자기 손이 남의 손처럼 느껴진다면 자신의 손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소외는 자신의 주변, 노동 및 노동의 산물, 자아로부터 멀어지거나 분리된 듯한 감정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2. 소외의 원인과 종류



1) 심리적 소외

제만 Seeman은 소외를 개인이 경험하는 특정한 심리적 상태라고 정의한다. 소외를 ‘무력감’ ‘무의미’, ‘무법’, ‘고립’, ‘자기 소외’ 등의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이러한 범주는 주체가 경험하는 심리적 상태이다. 프로이트가 나르시즘이라고 표현한 소외는 다소 병리학적인 현상이며, 개인의 정신적 병에 해당된다. 나르시즘은 현실감각의 위기이고 대상애의 상실은 바로 외적 세계전체의 상실을 의미한다. “자기 충족적인 사랑”은 진정으로 자기충족이 될 수 없고 결국은 자신을 파탄으로 몰고 간다. 정신적 위기의 표현인 나르시즘은 모든 희망이 상실되고 자아

속으로 퇴각하는 감각의 표현이다. 나르시스트는 비사회적 경향을 가진 개인이다. 그는 모든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시킴으로써 타인과의 모든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상실하며 마침내 타인으로부터 소외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적대적 태도를 취하게 된다. 그는 자기 자신만을 존경하고 타인 또한 자신을 존경해주기를 바란다.

2) 마르크스적 의미에서의 소외: 사회적, 경제적 소외

마르크스 소외이론의 중심 테마는 경제적 소외이다. 마르크스는 노동을 인간의 가장 중

요한 활동으로 보았다. 노동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세계와 스스로를 생산한다. 자신의 노동을 통해 인간은 적극적이고 의식적인 존재로 스스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수동적인 대상과 반대로 능동적인 주체로 인식한다. 그러므로 노동은 생계를 위한 단순한 수단이 아닌, 창조적 활동이다. 이러한 노동과 적대적 형태의 노동이 소외된 노동이다. 소외된 노동에 대해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소외된 노동은 자유로운 행위를 수단으로 평가절하 시킨다. 소외된 노동은 인간의 삶을 육체적인 실존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버린다.”

3) 프로이트적 의미에서의 심리적 소외

욕구억압의 사회적 필연성에 관한 프로이트의 이론은 개인과 사회 간에 존재하는 일치할 수 없는 대립에 기초한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욕구는 사회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자유로워지려는 욕구에너지를 억압함으로써만 개인의 사회적 적응이 가능하다. 사회구조는 개인이 만족이나 평등 상태를 달성하는 것을 방해한다. 일치할 수 없는 모순에서 보면 인간의 소외에 대한 이론은 두 가지 카테고리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사회에서의 개인의 적응의 문제가 관심의 중심이 되며 사회적 과정으로 인한 소외가 발생한다. 두 번째는, 인간의 태도로 인해 소외가 발생한다. 소외는 사회에 대한 개인의 적응의 문제이다. 소외된 인간은 사회에 대해 적응하지 못하는 인간을 의미한다.

4) 후기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현대적 소외개념

마르크제와 프롬은 소외개념을 통해 현대사회를 비판한다. 프롬은 『건전한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 인간들이 형성하는 사회적 성격을 묘사하면서 “자본주의가 인격에 미치는 영향의 핵심은 소외현상이다”라고 단정한다. 그는 소외란 인간이 자신의 경험 중에서 자기 자신을 낯선 사람처럼 경험하는 양식이라고 정의한다. 소외된 인간은 그 자신으로부터 소원해져 스스로를 자기 세계의 중심, 자기 행동의 창출자로 느끼지 않고 그의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가 그의 주인이 되어 그 주인을 순종하고 심지어는 숭배하기 까지 하며, 자기 자신을 마치 사물을 대하듯 대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프롬은 소외를 자기소외로 규정하며 정신 이상자를 “절대적으로 소외된 인격”으로 해석했다.

3. 모티프 유형

1) 자유로부터의 소외

소외 개념을 규정하는 문학적 근거는 쉴러의 『인간의 미학적 교육에 관하여』라는 논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쉴러가 분리Entzweigung의 시각에서 인간의 상황을 다루는 일련의 편지들이다. 쉴러는 진실한 최상의 인간존재를 기계적이고 의미를 상실한 일에 대비시키며 주관적인 자유의 제한으로 인간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는 소외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입센의 『인형의 집』에서는 소외가 인물의 실존의 조건이 되고 있다. 가족의 붕괴, 거짓된 삶,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무관심과 냉혹함은 인간을 위협한다. 자유에 대한 요구와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적 제약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주인공 노라는 고통 받는다.

2) 물질로부터의 소외

플로베르, 폰타네, 민나 카우츠키, 에밀 졸라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세계의 물신화현상 또한 소외현상을 보여준다. 소외의 전체는 개인이 물화된 세계와 대립하고 있으며 부단히 증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질적 소외는 인물의 정신을 지배하며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감정의 분열을 반영하며 저항의 여러 가지 형태를 보여준다. 이는 공격적으로 표현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의 반복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3) 노동으로부터의 소외

인간성을 실현하는 창조적인 노동이 단순히 물질을 취득해 삶을 지속시키는 노동으로 변질된다. 임금노동, 계급의 발생 등으로 인한 노동의 소외는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소외의 원인이 된다. 노동으로부터 소외된 노동자들의 분노와 그에 대한 저항을 그리는 작품들의 예로는 프리츠 랑의 <메트로폴리스>, 톨러의 <기계파괴자들> 등이 있다.

4) 시대적이고 현대적인 징후로서의 소외

권력에 대한 저항, 시대적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거리, 자신의 문화에 대해 낯설게 되기 등으로 표현되는 현대적인 작품에서도 소외의 형식들이 표현된다. 카프카는 현대사회에서 자아 상실의 문제에 대해 몰두한다. 『변신』에서 벌레로 변한 외판원 그레고르는 현대사회에서 소외된 인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4. 서사구조

	내용
원인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불평등
	인간을 사물화, 상품화시키는 요인들
	정체성 상실
	주변으로부터의 무관심, 주변의 따돌림
	권유, 성격
	가부장적 권위

	관료주의
	인종적 차별
	신에 대한 믿음의 상실
과정	반항, 변화/변신을 시도함, 정체성 상실
	내면적 세계로의 도피
	도주, 여행
	가출
결과	기존사회질서에 적응하거나 타협
	정체성 회복
	파멸 (자살, 정신착란)
	새로운 정체성 획득

5. 유형 및 서사구조의 예: 『남자는 남자다 Mann ist Mann』*

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 Bertold Brecht(1898-1956)
장르	희곡
생성년도	1926
등장인물	갈리 가이: 부두 하역부이지만 군인 에라이 짚으로 개조되는 인물 울리아 쉘리, 에세 마호니, 폴리 베이커, 에라이아 짚: 인도 주둔 영국군 4인조 자동화기 분대원들 찰스 페어차일드: 살인마라 불리는 주임상사 갈리 가이의 아내 레오카디아 백빅: 술집 과부 왕: 티벳의 어느 절 주지승

5.1. 내용 요약

아내의 부탁으로 생선을 사러 시장에 나간 갈리 가이는 술집 과부 백빅의 부탁으로 술집까지 장바구니를 들어다준다. 무리한 요구에도 ‘아니오’라고 말할 줄 모르는 갈리 가이는 자동화기 분대원들에 의해 부대로 유인된다. 갈리 가이는 군인들에게 여송연을 얻고 분대원 짚의 짐호를 대신해주는 역할을 부여받는다.

* 유창국/김선영(역): 브레히트의 백목원, 책세상, 1994, 39-128쪽.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에도 담배와 술로 군대 생활의 맛을 본 가이는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갈리 가이가 아니냐는 백빅의 질문에 가이는 ‘아니오’라고 대답하며 자신의 존재를 부인한다. 짚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분대원들은 부대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가이를 짚으로 개조하기로 한다. 갈리 가이는 술과 담배에 대한 유혹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군인이 되기로 결심한다. 자신을 찾아온 아내한테 자신은 갈리 가이가 아니라고 또 다시 자신을 부정한다. 그날 저녁 전쟁이 선포되고 부대는 북방 지역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분대원들은 가이를 영원히 에라이아 짚으로 만들기 위해 가이를 군수품 밀매 사기 사건에 연루시킨다. 사기 행각에 휘말린 갈리 가이는 자신을 부정함으로써 사기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갈리 가이를 총살형에 처한다. 총살을 하려는 순간 갈리 가이는 기절한다.

갈리 가이를 변신시키기 위한 조작극으로 갈리 가이의 장례식이 거행된다. 짚으로 변신한 갈리 가이는 자신의 추도사를 읊는다. 짚이 된 갈리 가이는 부대를 따라 국경지방으로 떠나는 열차에 오른다. 열차 안에서 가이는 자신의 옛 이름을 고집하다가 가는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를 목격하면서 새로운 존재를 받아들인다.

갈리 가이는 동료들 찾아 온 진짜 에라이아 짚에게 신분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신의 신분증과 과거 이름 갈리 가이를 넘겨준다. 그는 전쟁에서 성을 파괴하는데 큰 공을 세운다. 국경을 넘기 전 그는 스스로 자동화기 분대원들의 신분증을 회수한다.

5.2. 모티프 유형 및 서사구조

- **유형:** 시대적이고 현대적인 징후로서의 소외

- **서사구조:** 순진하고 선량한 부두 노동자 갈리 가이는 대신 점호만 해달라는 군인들의 부탁을 받고 부탁을 들어준다. 갈리 가이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전혀 다른 인간으로 개조된다.

원인	선량하여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함
과정	자신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함. 정체성 상실
결과	새로운 정체성 획득: 자신과는 다른 인간으로 개조됨

6. 작품 목록

카프카 Franz Kafka: 『유형지에서 In der Strafkolonie』 (1919), 『변신 Die Verwandlung』 (1915), 『소송 Der Prozeß』 (1925), 『성 Das Schloß』 (1926)
 브레히트 Bertolt Brecht: 『남자는 남자다 Mann ist Mann』 (1926), 『사천의 선인 Der gute Mensch von Sezuan』 (1943)

7. 연계 모티프

노동, 착취, 폭력, 권력, 정체성, 자유, 부조리, 자살, 죽음, 정신착란

※ <모티프 연계를 통한 스토리생성의 예>

모티프 연계	사랑 + 소외(정체성 상실) + 도피 + 가출
스토리	아들의 연인을 사랑하게 된 아버지는 세상과 가족으로부터 버려졌다는 소외감에 시달린다.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아버지는 가족을 버리고 잠적한다.